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제언 : 백석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부교수

Programs and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Christian Studies : A case of Baekseok University

Ji-Won Kim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인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와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행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학문연구의 참여대상을 전임교수에서 연봉교수와 시간강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단순히 세미나를 수료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참여자의 기독교학문 연구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 기독교학문연구의 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독교학문연구의 성장 단계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통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내외 기독교대학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이를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참다운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 기독교학문, 기독교세계관, 신앙, 학문, 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rograms implemented by Baekseok University in order to activate Christian studies, and to look for ways of developing the programs. To do this, programs such as the Faith and Learning seminars and the Christian studies small groups were introduced, and discussed limitations and suggestions to improve it.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are expanded from full-time professors to lecturers. Second, the present way of simply completing the seminar should be changed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Christian studies. Third, the Christian studies small groups are to be expanded to wider group of professors. In addition, to spread the culture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should provide support for each stage of the growth of Christian studies. This study will be presented as a model to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and abroad, which is in pursui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Christian college through the activation of Christian studies.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Christian studies, Christian worldview, Faith, Scholarship, Integration

1. 서론

미국의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인 Carey는 하버드와

MIT에서 시작한 새로운 네트워크 형태의 교육 틀인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대학(University of Everywhere)’이 학습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8 Baekseok University research fund.

*본 논문은 2015년 11월 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32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Ji-Won Kim(jiwony70@gmail.com)

Received September 4,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는 대학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1].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대학의 존재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대학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많은 대학들이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세속화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 과학주의의 영향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타종교의 성장과 종교다원주의, 재정과 규모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학문의 수월성과 학문의 자유 등의 이유로 당초의 기독교적 설립이념과 설립목적에서 서서히 이탈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되는 과정 및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2].” Ringenberg는 미국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소개한 책의 부록에서 한국의 기독교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세속화되었으며, 나머지 기독교 대학들의 현황에 대하여도 단지 현재 재학생의 수와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대학의 수치 등을 언급하고 있다[3]. 이는 한국 기독교대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30여 년 전 장로교 의료선교사로 온 알렌(H. N. Allen)과 감리교선교사로 온 스크랜튼(M. F. Scranton)에 의해 시작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세상적으로 탁월한 대학임을 각종 수치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나, 더 이상 기독교대학이라 할 수 없으며 세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대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었으나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잃고 세속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문 발전의 동인이 되었던 과학주의와 지성주의가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제외시키게 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4]. 과학과 지성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의 학자들이 기독교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세속화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가치들, 즉 학문과 신앙의 통합 및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들에 부딪히면서 타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5].”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이 있다. 신앙과 학문이 갈등관계에 있다는 태도, 이와는 정반대로 갈등관계가 없다는 태도, 또 다른 시각은 신앙과 학문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태도이다[6].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다양한 태도 중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지향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접근 태도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앙생활이 학자의 연구와 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연구와 수업이 학자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백석학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32).” 라는 말씀을 붙잡고 1976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다[7]. 백석학원의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는 백석학원의 설립취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이 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7].”

백석학원의 설립취지에서 밝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먼저 자신의 전공학문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기독교학문에 대한 연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기독교대학의 학자들이 전공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갖고, 이에 근거한 연구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기독교대학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대학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동안 신앙과 학문의 통합[8,9], 기독교학문[6,10,11], 기독교대학[5,12-15]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대학 현장에서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기 위해 진행되어 온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한계와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백석대학교 뿐 아니라 기독교 학문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국내외 기독교대학들에게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기독교학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여 온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기독교학문 활

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독교학문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는 것과 기독교학문을 하는 학자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신앙으로 믿는 학자는 많다. 하지만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라 하더라도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학문을 수행하는 학자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공한 학문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신앙과 기독교학문의 관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

2.1 기독교신앙과 기독교학문의 관계

2.1.1 신앙과 학문의 이분법적인 삶

“신앙은 주로 교회 생활이나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는 잘 드러날 수 있지만, 학문의 내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6].”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인의 삶과 연구자로서의 삶이 분리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계의 상황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라 할지라도 은연중에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학문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전공한 학문분야의 중심 주제를 설명할 ‘기독교 지성’을 갖추는데 실패한 것이다[16].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즉, 기독교학문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영역과 학문의 영역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삶과 신앙은 왜곡된 삶과 왜곡된 신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1.2 신앙과 학문의 일치된 삶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연구와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조명된 학문과 삶을 통해 기

독교학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는 기독교신앙이 그의 학문에 융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에게 기독교학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학문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의 본질이다. 신실한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라면 자신의 능력만으로 현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학문분야의 학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영역에 부르신 소명을 깨달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학자가 기독교학문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가 기독교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은 신앙적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있다[10].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가 기독교학문을 한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2.2 기독교학문의 영향

기독교학문을 한다는 것이 기존 학문에 ‘하나님’이나 성경 구절을 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독교학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와 결과라는 것이다[10].” 그러나 기독교학문이 단지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의 연구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에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학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17]. 즉, 학자의 기독교학문 연구가 지식을 추구하는 연구를 넘어 신앙에 영향을 미치며, 전공학문에 영향을 주어 학생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학문은 ‘종교적인’ 주제들과 관련 없는 ‘세속적인’ 주제라도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18].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교회 성장이 지체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독교 지성의 몰락에 있다[14].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최전선에 서있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학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지성의 몰락에 대한 책임은 바로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자와 기독교대학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자의 부르심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능력이 학문과 삶에 드러나도록 하며,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극대화하는 숭고한 일에 있다[15]. 기독교대학은 기독교학자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수

업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2.3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일반대학 가운데 ‘하나의 대학’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14].” 기독교대학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세상적인 명성과 우월성을 얻기 위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은 내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흔히 기독교대학의 조건으로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 학생들을 위한 채플과 교직원들의 예배가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만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전부는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용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 있다[14].”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학문을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기독교 대학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학문의 진정한 요람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10].” 기독교대학임을 표방하며 전도, 봉사, 섬김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문을 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학문을 전면으로 내세운 기독교대학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대학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열악해 보인다[14].”

국내 기독교대학들은 대학교구조개혁가, 입학자원의 감소, 등록금 수입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학교구조개혁이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 교수를 양산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때문에 교수의 강의시수만 높이고,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학생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19].” 생존인가 기독교대학인가라는 선택의 상황에서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들이 조금씩 기독교대학의 길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대학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약조건 속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계승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4]’한지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단지 교육과정 안에 영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로그램을 넘어 강의실의 안과 밖에서 교육의 핵심에 근접한 보다 심도 있는 통합 특별히 한 학문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에서 심도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15].”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교수는 부르신 소명에 따라 가르치고 연구하며, 직원은 기독교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3년 또는 4년의 대학생활 동안 수업과 다양한 대학 문화 속에서 기독교정성을 배우고 기독교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경영진은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들이 이러한 숭고한 소명을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기독교정체성 유지를 위한 과정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자신의 신앙적 성향을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 성향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복미에서 태어나서 발전한 기독교대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모델을 적용할 한국의 토양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12].” 백석학원은 2006년부터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의 기독교대학을 탐방하여 기독교대학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1 백석학원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의 대학의 탐방

3.1.1 해외 기독교대학 탐방

2006년 당시 백석대학교 최갑중 부총장을 포함하여 5명의 교수진이 미국 기독교대학들의 기독교학문 연구, 채플, 기독교커리큘럼, 교직원의 기독교 정체성 유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Calvin College, Wheaton College, Azusa Pacific University, Baylor University, Biola University, Dallas Baptist University를 방문하였다. 2008년에는 신앙과 학문 통합 프로그램, 교수 정체성 교육, 행정직원의 정체성 교육, 커리큘럼, 채플, 기독교대학의 문화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Azusa Pacific University, Westmont College, Bethel University 등을 방문하였다. 2009년에는 최태연, 김진하,

김병국 등이 유럽의 University of Zurich, University of Geneva, University of Strasbourg, University of Heidelberg,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Vrije Universiteit in Amsterdam 등을 방문하였다. 최태연 등의 연구자들은 해외 기독교대학의 탐방을 통하여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등의 기독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3.1.2 국내 기독교대학 탐방

해외 기독교대학의 탐방과 함께 한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전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등의 국내 기독교대학을 탐방하여 각 대학의 채플과 교직원들의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인하였다. 국내 기독교대학의 탐방 결과, 대부분의 국내 기독교대학들이 대학채플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교직원 예배나 교수들을 위한 정체성 세미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대학의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고한 한 연구를 보면, 미국의 Wheaton College, Calvin College, Azusa Pacific University, Biolar University의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체계적으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백석대학교를 언급하고 있다[20].

3.2 기독교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실천원을 두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실천원에는 연구팀, 실천팀, 출판팀의 3개의 팀이 있다. 연구팀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연구를 담당하고, 실천팀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설립 정신을 전하고 실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출판팀은 기독교 정체성 유지를 위한 출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2.1 기독교대학실천원의 신설 배경

2000년 칼빈대학의 전직총장인 Gaylen Byker는 백석대학교를 방문하여 백석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50년 또는 10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도전을 받은 장종현 박사는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석정신아카데미를 2000년 9월에 설립하였다(2015년부터 학

교법인 백석대학교의 백석정신아카데미 산하에 기독교대학실천원을 두어 업무를 담당). 이후 백석정신아카데미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의 기독교 석학을 초청한 백석강좌를 개최하였다.

3.2.2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기독교학문의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신앙과 학문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의 백석정신아카데미 산하에 있는 기독교대학실천원은 2007년부터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경, 개혁주의신앙,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10주간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 2012년부터는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학기부터는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가.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

(FLS 1, Faith and Learning Seminar 1)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의 목적은 백석학원의 교수들이 개혁주의 전통과 성경적 세계관을 깊이 이해하고 소명감을 갖도록 도와 기독교학문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백석학원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7대 실천운동을 내세운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대하여 소개하고, 기독교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개관하고,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고, 교내외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삶과 연구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학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

(FLS 2, Faith and Learning Seminar 2)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의 목적은 세미나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기독교학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문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과 각 학문영역별 기독교학문 연구의 현황과 기독교학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을 이수한 연구자는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기독교학문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기독교학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다.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

(FLS 3, Faith and Learning Seminar 3)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의 목적은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에서 수집한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자신이 전공한 학문분야에서 기독교학문 연구를 집적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두 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독교세계관과 성경에 기초한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 과정은 1년 과정으로 4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진행되며, 작성된 논문은 기독교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또는 이에 준하는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투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기독교학문 연구 소모임

기독교대학실천원에서는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 2를 수료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백석공동체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독교학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학문 연구 소모임 활동을 돕고 있다. 기독교학문 연구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함께 기독교 학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 성경에 기초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기독교대학 및 기독교학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각 학부의 전공교수에 의한 『기독교의 이해』 교재 개발

백석학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백석인의 지표는 백석인의 교육원리가 “성경에 기초한 인성교육,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 인류를 섬기는 인재교육”임을 밝히고 있다[7].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백석대학교는 8학기 동안 학생들이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은 목사들이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실천원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독교의 이해』 교육사역에 목사와 전공 교수가 함께 협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 중 구약과 신약 등의 7개 교과목은 목사들이 강의를 담당하지만, 3학년 2학기에 진행할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 중 <기독교세계관과 전공학문>은 전공교수들이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에 교재가 완성되었다. 이 교재 개발의 목적은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신의 학문과 전공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기독교학부를 제외한 11개 학부가 참여하였고, 2018년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되었다.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신앙을 가진 전공교수에 의해 진행될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의 교육은 앞으로 교양교육을 넘어 전공학문 영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각 전공학문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강의는 기독교대학이 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업을 통해 각 학문분야의 기독교지성이 만들어지고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본질은 학문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곳이다. 대학은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학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독교대학이 아직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학예배 등을 통해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학생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방적인 제도적 행위가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의실에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전공학문의 교육은 복음전도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신앙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학문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따라서 전공학문을 기독교신앙에 근거하여 교육하는 것은 체플 및 대학예배를 통한 전도보다는 반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 수업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8]와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전공수업이 기독교신앙을 가진 학생들과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연구[21]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학문 활성화에 대하여 논하므로 학생전도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각 전공분야에서 기독교학문의 활성화가 학생들에게 보다 접근가능하고 합리적인 전도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3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각 프로그램의 한계 및 문제점

가.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 (FLS 1, Faith and

Learning Seminar 1)의 한계 및 문제점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들의 성경에 기초한 학문연구를 돕기 위해 진행된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은 참여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몇 차례 프로그램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방향은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에서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양하여 성경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성경에 대한 추가적인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연구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매주 2시간씩 10주라는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각종 성경공부 프로그램 및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과 백석학원 산하 신학대학원에 다닐 경우에 수업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4일을 수업에 참여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나.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 (FLS 2, Faith and Learning Seminar 2)의 한계 및 문제점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의 목적은 연구자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학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해석학, 기독교학문 연구방법론, 기독교학문의 역사, 최근 기독교학문 연구 현황, 참여자 발표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성경해석학과 기독교학문의 역사의 경우, 참여자들이 세미나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하였지만 실제 기독교학문연구를 실행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강의자가 기독교학문연구의 필요성과 실제로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기독교학문연구를 실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나누는 세미나 수업을 공감하며, 자신의 전공학문에 기독교학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0주간의 프로그램 참여 후,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학문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간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후속 연구

로 이어지는 것을 극히 드물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가 승진에 반영되어 기독교학문연구에 대한 열의 보다는 승진하기 위해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있었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다.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 (FLS 3, Faith and Learning Seminar 3)의 한계 및 문제점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의 목적은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기독교학문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에서 제출하였던 연구계획과는 다른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전공학문 분야에서 기독교학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에 10주라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학기 중 교수로서의 사역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바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 참여자들은 기독교학문학회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논문을 투고하도록 내규로 정하였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지켰다. 하지만 기독교학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 과정은 승진에 반영되지 않아 기독교학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3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가 등재지에 게재될 경우이건 탈락된 경우이건 지속적으로 기독교학문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기존에 자신이 연구를 시행하였던 학문연구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기독교학문 연구를 수행할 의지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의 한계와 문제점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을 통해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수료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기독교학문 연구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1학기부터 매 학기 7~10개의 팀 30여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여 운영되었다. 매 학기 30만원 이내의 적은 액수였지만 기독교학문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 결과

를 함께 나누었다.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 두 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한 전공교수들이 참여하였고, 다른 전공교수들의 참여가 부진하였다는 점이다. 특정 전공 교수의 경우, 인증평가로 인해 적은 액수이지만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전공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확보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전공교수의 참여 확대와 함께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수료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독교학문 연구의 풍토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제언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신앙과 학문연구 등의 프로그램 외에,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한 신앙과 행정연구 세미나 그 외에 성경에 기초한 연구과제 공모, 교수정체성세미나, 교직원정체성세미나, 신입교수 정체성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들 자신이 곧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다[14].” 이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 구호나 제도,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독교대학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 함께 기독교대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대학은 한두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입식 교육의 한계

를 넘어, 기독교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함께 국내 기독교학문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를 위한 제언

4.1.1 현재 진행 중인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가. 참여 대상자의 확대

현재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는 전임교수에 한정하고 있다.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연봉교수와 외래교수가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수들이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임교수뿐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수진들이 기독교세계관을 알고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기독교학문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교육한다면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현재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봉교수에게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둘째, 겸임교수와 시간강사에게도 기독교학문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나. 내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2007년부터 진행된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를 통해 많은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2018년 8월 현재, 전체 교원 529중 61.8%에 해당하는 327명의 교원이 신앙과 학문 세미나 1을 수료하였고, 187명(35.3%)의 교원이 신앙과 학문 세미나 2를 수료하였다. 신앙과 학문 세미나 3의 수료자는 37명(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공학문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학자를 배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학문분야에서 기독교학자가 배출되고 그 학문의 결과와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사회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대학이 되는 길은 바로 기독교지성과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백석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하고 기독교 학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던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 2 과정을 2015년부터 교원의 승진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정하였다. 부교수 승진을 위해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1을 수료해야 하고, 정교수 승진을 위해서는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 2를 수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학자들이 지원하여 참여하게 하였으나 이전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던 세미나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참석자 모두가 승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의 내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켜 실제 기독교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통합이란 단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다[9].”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그 성과에 집중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보다는 그 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학문을 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며, 성스러운 부르심이다[22]. 기독교대학은 기독교학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터놓고 기독교학자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내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수료를 승진요건으로 정한 것에서 실제 기독교학문 연구결과를 승진요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단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승진요건으로 정한 경우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독교학문 연구결과를 승진요건으로 정할 때는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독교학문 연구를 격려하고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학문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훈련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을 확대 적용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기독교학문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을 통해

신앙과 삶, 학문을 통합하는 공동체가 활성화 된다면 내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1.2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가. 기독교학문 연구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지원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급적 숨기고 있으며, 학문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신앙이 별개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6].”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학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평가 등의 잣대로 인해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백석대학교의 신앙과 학문 프로그램의 연구비도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학자들의 헌신과 함께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백석대학교는 2014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이상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등재지 이상에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학문을 독려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백석대학교의 현 시점에서 이는 기독교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기독교학문을 한다는 것이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백석대학교의 연구자들에게 기독교학문의 탁월성을 요구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전임교원(연봉제 전임교원을 포함)의 7%가 기독교학문연구를 시도하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학문에 있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백석대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으니 걷고 뛰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학문에 대한 시도를 뒤로 미루고 기존에 해왔던 세속화된 학문체계에서 좋은 평가와 업적을 쌓으라고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모르겠으나 기독교대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독교학문의 발전에는 분명히 위해적인 요소인 것이다.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의 상태는 기독교학문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단계이다. 씨앗과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세속적인 연구풍토에서 기독교학문의 싹은 고사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기

독교대학의 문화, 구조, 행정체계는 기독교학문 활동을 더욱 더 장려해야 한다[23].”

기독교학문연구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대학의 연구자들이 기독교학문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독교학문연구 활성화 프로그램 수료 후, 3년까지는 기독교학문 연구를 수행을 위한 성장 단계로 정하여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게재되지 않더라도 연구업적을 인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여 기독교학문 연구를 위한 성장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수료 후, 4년차부터는 성숙 단계로 정하여 기독교학문연구 활동을 통해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등재된 경우, 일반 연구비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교수로 재직하는 시간 중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기독교학문 연구논문이 게재될 경우, 명예교수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나. 다양한 기독교학문 토론의 장 마련

채플이 있다고, 기독교학문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기독교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진행한다고 기독교학문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신앙과 학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앙과 학문세미나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지 상관없다. 집회, 캠프캠프,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욱 더 그렇지[24].”

C. 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흔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세미나,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였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학문의 발전과 기독교대학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요소가 되는 것이다. 학술적인 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기독교적인 모임에는 진정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독교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연구자들 간의 기독교학문 연구모임뿐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간의 기독교학문 모임을 갖도록 한다. 현재 백석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이 독서토론 모임을 통해 신앙서적을 읽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교수와 학생들이 기독교학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기독교학문연구의 풍토가 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학의 각 부서에서 기독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토론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한 경우, 인사고과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지향을 통한 기독교학문의 진과

기독교대학의 국제화라는 주제로 2015년 6월 칼빈대학에서 개최된 국제기독교고등교육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국제화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다양한 해외 기독교대학들은 외국학생의 유치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국의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아가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기독교대학들은 미래의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지능(CQ, cultural intelligence)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고 있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는 대학의 비전에 부응하여 글로벌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세계의 주요 기독교대학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낸 급격한 성장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국내외 대학 관계자들이 부러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백석대학교의 규모나 위상에 비해 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백석대학교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해외 기독교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 현재 백석대학교는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의 학생들을 기독교인재로 양성하여 현지인 선교사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선발된 유학생들이 기독교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외에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지성을 개발할 수 있는 모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백석대학교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백석대학교는 국제기독교대학협회의(IAPCH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소속 대학 및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협의회(PAUA, 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소속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과 학생과 교수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지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백석학원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들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기독교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1]. 기독교학자와 기독교대학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 직원, 학생이 모여 있거나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기독교대학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스스로 기독교대학이라고 주장한다고 기독교대학일 수 없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마 7: 20), 기독교대학이 만들어낸 열매로 기독교대학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학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 대학건물의 수, 신입생의 수, 재학생 유지율, 연구비 수주 규모, 등록금 환원율 등의 대학평가 수치를

올리는 것이 그 열매일 수 없다. 기독교대학의 열매는 대학평가기관에 드러지는 것인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인가? 기독교대학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쓸모없는 가지를 꺾어 버려야 한다.

기독교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생존할 것인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백석학원의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설립취지문에서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세상에 또 하나의 대학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7]. 이러한 설립취지는 단지 기독교대학의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학을 만들어 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세속화된 국내외 기독교대학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대학은 선교사나 기독교신앙을 가진 설립자에 의해 세워졌다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독교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기독교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체계이며, 영적체계, 지적체계, 활동체계이다[25]. 모든 기독교인은 기독교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체계를 만들고, 기독교대학은 기독교학문 연구를 통해 지적체계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전문가를 양육하여 활동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꽃은 기독교학문이다. 각 학문영역에서 기독교학자에 의해 기독교학문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질 때, 학생들은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각 전공영역에서 전문가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 드러지는 대학예배와 함께 기독교세계관이 녹아있는 전공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 기독교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임교수 뿐 아니라 연봉교수와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에게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내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현재 신앙과 학문연구 세미나를 참여하는 것을 승진요건으로 두는 것을

기독교학문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의 확대적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독교학문 연구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독교학문연구를 성장 단계와 성숙 단계로 나누어 기독교학문 활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제안하고,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기독교학문 연구논문이 게재될 경우, 명예교수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다양한 기독교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 간의 기독교학문 연구 모임뿐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간의 기독교학문 모임을 추진하여 기독교학문연구의 풍토가 학생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대학의 각 부서에서도 기독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토론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다섯째,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지향을 통한 기독교학문의 진화를 위해 백석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제기독교대학협회의(IAPCH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소속 대학 및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협의회(PAUA, 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소속 대학들과의 학생과 교수 교류 추진을 제안하였다.

기독교대학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 땅의 기독교학자들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한탄하며 썩어질 세상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 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신실하게 기독교학문을 수행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이것이 기독교학자의 삶이고 갈 십자가이다. 이러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기독교학자들이 많아질 때, 기독교학자들은 소명으로 주신 기독교학문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참다운 기독교대학이 많이 세워져 나아가길 바라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학문이 활성화되어, 기독교지성을 꽃피우길 기대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려 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눅 14:34-35).”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제가가 되기 위해 필요

한 헌신을 말한다(눅 14: 26-27). 예수를 따라가는 삶과 헌신이 바로 소금의 맛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삶과 헌신이 없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기독교대학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이를 이루어가기 위한 헌신을 해야 한다. 여전히 내 가족, 내 목숨, 십자가를 지지 않음, 소유에 대한 욕망(눅 14: 26-27, 33)에 사로잡혀 나아가다면 맛을 잃은 기독교대학이 되어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REFERENCES

- [1] C. Carey. (2015). *The End of College* New York : Riverhead Books.
- [2] H. H. Jung. (2009). *Strategic Administration of Christian University*. Seoul : Heavenly Manna.
- [3] W. C. Ringenberg. (2006). *The Christian College: A History of Protestant Higher Education in America*. Grand Rapids : Baker Academic.
- [4] S. J. Lee. (2007). *Christian University & Education*. Seoul : Jeyoung Communication.
- [5] Y. J. Choi. (2013). Science, Faith and Christian University : Focusing on the Thought of Hendrik van Riessen. *Korea Reformed Theology*, 39, 187-220.
- [6] H. Y. Jo. (2000).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Seoul : IVP. Trans. G. M. Marsden.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7] J. H. Chang. (2014). *The Founding Spirit of The Baekseok Schools*. Seoul : Baekseok Christian Academy.
- [8] E. S. Rhee. (2010).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n Analysis of Student Essays. *Faith & Scholarship*, 15(2), 123-151.
- [9] Y. J. Choi. (2013).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Seoul: Jeyoung Communication. Trans. R. A. Harris.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Oregon: Cascade Books.
- [10] K. W. Shin. (2013). Vision of Christian Scholarship: Possibility and Necessity. *Faith & Scholarship*, 18(4), 189-212.
- [11] J. K. Park. (1992).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CUP. Trans. A. F. Holmes.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 Willia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 [12] J. Shim. (2004). Suggestions for Korean Christian University. *Baekseok Journal*, 6, 9-34.

- [13] E. S. Rhee. & Y. G. Jei. (2016).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Its Operating System in a Christian Higher Education : A Cas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Faith & Scholarship*, 21(2), 177-207.
- [14] Y. H. Jo. (2009). *Christian University*. Seoul : Korean Presbyterian Press.
- [15] S. T. Beers. (Ed.) (2008). *The Soul of a Christian University*. Texas :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 [16] B. Y. Hong. (2006). *Total Truth*. Seoul :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Co. Trans. N. R. Pearcey. (2004). *Total Truth* Wheaton : Crossway Books.
- [17] T. Jones. & S. Trudeau (2008). *Managing Professional Interdependence: A Model for Christian Scholarship*. in Beers, S. T. (Ed.) (2008). *The Soul of a Christian University*. Abilene, Texas: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 [18] O. B. Jung. (201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Seoul : IVP. Trans. R. W. Stott. (2006).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 Zondervan.
- [19] K. J. Rhee. (2015). Issues and alternatives to the Government-driven Colleges and Universities' Structure Reform Evaluat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8(3), 933-954.
- [20] E. S. Rhee. (2012). Faculty Development for Christian University: Directions and Programs.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5, 33-67.
- [21] J. W. Kim. (2015).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the Physical Therapy Major Classes. *Faith & Scholarship*, 20(2), 39-68.
- [22] R. J. Sawatsky. (2004). *The Virtue of Scholarly Hope*. in D. Jacobsen. & R. H. Jacobsen. editor. *Scholarship and Christian Faith*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23] S. V. Zanten. (2012). *Christian Scholarship: Opportunities, Realities, and Challenges*. in S. J. Joeckel. & T. Chesnes. editor. *The Christian College Phenomenon*. Texas :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 [24] S. H. Kim. (2000). *The Screwtape Letters*. Seoul : Hongsungsa. Trans. C. S. Lewis. (1942). *The Screwtape Letters*. London : Geoffrey Bles.
- [25] K. W. Kim. (2011). What is the Christian Culture.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Conference*, (pp. 188-207). Seoul :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김 지원(Kim, Ji-Won)

[정회원]



- 1997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보건학사)
- 1999년 8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이학석사)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해부학, 물리치료학, 기독교학문
- E-Mail : jiwony70@gmail.com